

로컬뉴스

농어촌공 정읍,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돌보기 증명 행사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지난 16일 소성면 대상마을회관에서 직원 10여명과 지역 어르신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라이트(돌보기 증명)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봉사활동은 지역 안경점의 도움으로 어르신들에게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개인별 맞춤 돌보기안경을 나누어 주었으며, 70세이상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서 글씨도 잘 안보이고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꼭 맞는 안경을 맞춰줘서 너무 고맙다'며 감사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농지연금사업 설명회 1:1 개별 상담도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읍금산면, 경로당 안전점검

김제시 금산면(면장 김민완)은 16일부터 25일까지 관내 52개 경로당 및 12개 그룹·홀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을 맞아 추위로 인한 경로당 시설물의 누수 및 기타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후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불편·예외 사항을 청취하여 각종 사업추진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이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관내 사회단체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독거노인의 건강상태와 안부를 챙기고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교육을 통해 사전에 사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완 금산면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 위험발생 상황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 상동지구대, 수능일 청소년 탈선예방 순찰활동 강화나서

수능시험이 끝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기 위해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상동 지구대가 야간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상동 지구대는 수능시험 직후의 심리적 해방감과 여가시간 증가로 인해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 등 일탈행위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고 주요 변화가, 유흥지역은 물론, 학교 주변 취약개소 등을 중심으로 중점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관내 자율방범대와 협력 꼼꼼히 순찰을 벌이고 편의점과 주점 등에 대해서는 담배와 주류 제공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김용철 상동 지구대장은 " 그동안 심리적으로 압박이 심했을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 후 일탈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연말까지 청소년 비행예방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보건소 주민 금연캠프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래민)는 17일 금산면 평지마을 등 4개소 금연자마를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자마 마을 주민들이 실시하였던 마을 활동사례들을 발표하고 금연 실천 노하우를 전수하는 특별한 동행, 특별한 만남 금연자마를 금연캠프를 운영하였다.

금연캠프는 기초검진(혈압, 당노, 콜레스테롤), 레크리에이션을 겸한 건강체조, 마을주민 대표들의 사례발표와 금연선언문을 낭독, 건강강좌 등으로 진행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도로 설해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시 설해대책 대비 만전

7억 5천만원 투입... 국·지방도 노선 포함한 지역 내 63개 노선 408km 구간

정읍시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도로 설해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제설 작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7억5천만원을 들여 제설 장비 보관창고를 완공하고, 연화칼슘 등의 비축자재도 약 30일 분량을 확보했으며, 지난 15일까지 모래주머니 2만개와 제설할 50개도 시가지 주요 고갯길과 터널, 교량 등의 취약지역에 배치했다. 또한 이달 25일까지 제설 취약지구인 철보 구절재와 내장 방산재, 신태인읍사무소에 연화물 저장탱크에 연화물 용액 각 20톤도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고갯길이나 버스 오지노선 등 취약 지역은 모니터 요원과 주민 자율 제설대를 편성하여 유사시에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처하는 한편 민간 업체와의 장비 임대 계약(15톤덤프 8대)을 통해 취약 구간인 추령재와 구절재 등 일정 구간은 민간 위탁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283대를 보급하고 최소한의 유류대와 제설작업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농기계 종합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자원 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제설작업에 따른 민관 유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생기 시장은 "신속한 도로 제설 작업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시의 제설작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보람 찾는 농민·제 값 받는 농업·사람 찾는 농촌 실현 위해"

정읍시, 삼락농정 만들기 '박차'

정읍시가 삼락(三樂)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농민과 함께하는 1락 '보람 찾는 농민', 2락 '제 값 받는 농업', 3락 '사람 찾는 농촌', 즉 삼락 실현을 위해 분야별 사업 추진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일부는 완료했고 일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 경영안정 등을 통한 '보람 찾는 농민' 분야로 8천300만원을 들여 농어촌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의료를 지원하는 '여성 농업인 생생비우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번기 공동 급식소 11개소에 2천600만원을 지원해 농번기 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냈다.

'제 값 받는 농업' 실현 기반 구축에도 주력했다.

7억5천만원을 투입해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47농가)사업을 추진했고, 한중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한 발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2개소) 사업에 2억980만원, 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에 2억330만원, 고령력 암소 육군 조성 사업에 2억220만원을 들였다.

시는 내년에도 유용 곤충 사육 기반 사업(5개소)에 2억5천만원을 투입해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을 육성하는 한편 환경 친화적 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2천만원을 들여 양식장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양식 어가의 사고예방과 경영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사람 찾는 농촌' 만들기에 나서 농촌 체험 귀농 귀촌

확대 등에 주력했다.

이의 일환으로 9억원을 들여 신내면 일원 농촌 관광 거점마을 육성과 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도형 농촌 관광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1억원을 들여 귀농 귀촌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으며 귀농귀촌자와 정착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귀농귀촌협회 회원들의 재능을 기부받아 마을회관 벽화 그리기봉사 등도 펼쳤다.

특히 시는 지난 9월 정읍형 마을 만들기 전담대회를 열어 '사람 찾는 농촌'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으며 전국 기관 및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현안이 되고 있기도 하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 교월동 통장협의회, 2박 3일간 제주도 선진지 견학

말산업·감귤 등 지역자원 활용한 6차산업의 선진모델 배워

김제시 교월동 통장협의회(회장 이춘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협의회 회원들에게 선진도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준비되었으며 말산업·감귤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의 선진모델 현황을 둘러보고 대표적 환경과 지역발전의 상생모델인 물레길 등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를 준비한 이춘구 통장협의회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우리 회원들의 결속이 강화되는 기회가 되고 지역발

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교월동장은 "교월동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행정의 최일선에 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해주는 통장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 지역의 보다 나은 모습을 통해 우리의 발전을 모색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여성문화관 하반기 교육 수료

50개 과목 수강생 수료증 전달

정읍시 여성문화관은 지난 17일 2016년 하반기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서는 50개 과목 각 수강생들에 대한 수료증 전달과 함께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다.

표창장을 받은 조영자씨는 "그간 교육을 통해 배움에는 나이가 없음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건강을 유지하여 여성 문화관에서 좋은 벗들과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수료식 후에는 수강생들의 작품과 같고 닭을 기르는 선보이는 작품 전시(생활양예 외 16개 과목)와 발표도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김생기 시장은 "여성문화관은 앞으로도 정읍시의 중추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물론 나이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노후주택 보수·정비

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유금용)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부지사는 지난 16일 부안군 상서면 분장마을에서 노후주택 2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한 콘센트 안전점검과 누전 차단기·콘센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시 발견 되는 노후·불량 설비는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고 교체작업을 펼쳤다.

부안군지부는 이날 안전점검은 지난 6월 상서면 분장마을 명예이장이 된 유금용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장과 명예주인이 된 직원들이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지속적인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3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전기사용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유금용 지부장은 "앞으로도 많은 기업과 단체가 동참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킴으로써 농촌마을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참신한 정책 제안 반영해요"

김제시, 하반기 정책 아이디어 콘테스트 개최

김제시는 지난 16일 2016년도 하반기 정책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참신한 우수제안 5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인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콘테스트는 금년 8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의 공모기간에 접수된 824건의 제안 중 1차 사전심사와 2차 실무심사 등을 거쳐 김제 쌀밥집 운영 지원사업 등 10건의 제안을 최종 선정하여 심사 하였다.

심사 결과 김제 쌀밥집 운영 지원사업, '벽골제 상용화 VR게임 콘테스트 구축',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통한 시 세원 확보 등 5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우수제안자에게는 시장표창과 국외교육 연수 부여 등의 특전이 주어지며, 채택된 제안은 실무 부서에서 경제성, 시행시기, 방법,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에 반영된다.

김번 아이디어 콘테스트는 제안의 질적 향상과 공무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과거 공모와 달리 제안자가 직접 PPT발표로 제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심사에 있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심사위원 심사와 각 부서에서 추천된 30명의 청중평가단 심사를 반영하여 직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승복 부시장은 "금번 공모와 같이 김제시는 지속적으로 제안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해소는 물론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인사상 기점, 국외연수 기회 부여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앞으로 수준 높은 제안들이 지속적으로 발굴 시장에도 도입함으로써 시민행복과 김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이 내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안군, 국정시책 합동평가 보고회

부안군이 내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6일에서 17일 이틀동안 군청 건부회의실에서 국정시책 합동평가 성과향상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관제민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담당 부서장 및 팀장, 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평가 지표별 추진상황 점검과 부진지표의 문제점 분석 성과 향상 대책 보고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실적 반영될 내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정 주요 시책을 대상으로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100여 개의 세부지표로 나누어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비롯한 지표중목표대비 실적이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보다 전략적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과태료 징수를 비롯한 군 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성과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